

중년기가계의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nditure State of Midlife Households for Elderly Life's Preparation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조교수 송혜림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

Assis. Prof. : Dr.oec. Hye Rim, SO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xpenditure state of midlife households for elderly life stage and to find out the variables that have influence upon these expenditure.

The findings are follows :

- 1) The expenditure state was influenced by various variables as like wife's age, couple's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husband's retiring allowance, monthly savings, whole assets of households, level of dependence upon own children, etc.
- 2) The demand for economic preparation, program about elderly life, information and welfare system was related to the practical expenditure state absolutely and relatevely.

The result showed that the husbands' retiring allowance wa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to the expenditure state for the elderly life. In conclusion the rational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stage is very important for the economic welfare of households.

* 본 연구는 1997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한 연구임.

I. 서론

가계의 지출행동은 가계가 생활주기별로 갖게 되는 다양한 재정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가정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소유한 경제적 자원의 종류와 내용 및 양이 다를 것이며, 또한 가족의 생활목표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사용유형과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이때 특별히 가정생활주기별로 재정적 요구 및 목표가 달라지게 되므로 각 생활주기 별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준비하고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가계 재정관리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계의 재정적 요구들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변화되며, 동시에 개별 가계가 이러한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의 창출과 확보 그리고 다양한 분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재정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통하여 가정생활주기별 재정적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는 일은, 전반적인 가정경영과정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 생활주기에서 달성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단계의 경제적 과제들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주기별로 각 가정을 특징 지우는 다양한 생활내용을 반영하는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관리의 과정을 통하여 중요한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계의 지출분배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가정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형성기부터 가족성장기 초반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며, 본격적인 자녀교육이 시작되는 가족성숙기부터 노년기 초기까지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이기영 외, 1998:116). 따라서 이러한 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관계에 따라 저축이 가능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처해 있는 생활주기

별로 합리적인 가계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축의 목적을 보면, 어느 연령층에서도 '재난대비'의 목적이 높고, 20-30대에는 '주택자금 마련'이, 30-40대에서는 '자녀 교육비'가 저축목적의 제 1순위가 되고 있어, 연령에 따라 저축의 목적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기영 외, 1998).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하는 이유는 소득증가(62.6%), 자녀교육 및 결혼 등과 같은 장래의 목돈 지출 대비(15.2%), 토지 및 주택구입계획(6.7%) 그리고 노후생활대비(5.3%)로 나타났다 (통계청, 1996:158). 이와 같은 통계는 결혼할 당시 이미 주택을 마련했다든지, 자녀가 없었던지 하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가계가 연령대나 생활단계에 따라 어떤 목적의 저축을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개별가정에 있어 각 시기별로 어떠한 과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비교·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가계지출과 관련된 재정관리에서 5대 생활자금으로 언급되는 재정적 과제는 생활보장자금, 긴급예비자금, 주택마련 및 확장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그리고 노후생활자금이다 (이기영 외, 1998:136).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재정적 과제를 고려하여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어떤 과제를 어떤 주기에 달성해야 하는가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생활주기별로 가계의 재정적 요구 및 과제를 정리하여 보면, 지금부터 경제적 자원을 어떤 항목을 위하여, 어느 만큼 배분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또한 현재 시점 이전의 단계에서 재정관리가 제대로 되어 왔는지도 점검할 수 있고 각 생활단계마다 어떤 재정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정경영 및 가정자원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런데 중년기는 일반적인 생활자금과 예비자금 외에도 주택확장과 자녀교육 및 결혼 그리고 노후준비 등 다른 생활주기보다 훨씬 다양한 재정적 요구가 복합되어 있는 시기로서,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으로 인하여 자녀교육 및 결혼 그리고 자녀결혼

이후의 안정기반 마련 등에 대한 부모의 지출이 매우 커서, 이처럼 재정적 요구가 다양한 만큼 많은 중년기 가계는 여유자금의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모 자신의 노년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노년기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노년인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서 노령화지수 즉 14세이하 인구의 몇 %가 65세 이상 인구인가를 보면, 2025년 경에 99.8%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노년인구가 유년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 1996:86). 이러한 노년기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는 이러한 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28%였는데, 2000년에는 35%로 예측하고 있다 (박정아, 1994 - 이선행/이연숙, 1997:32 재인용).

이러한 노년기 가계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는 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하겠으나, 특별히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노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상승한 바와 같이 다른 재정적 과제의 달성을 위하여 노후준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으로부터, 노년기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년기 재무상태의 어려움은 단지 노년기에 해당하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동거하거나 혹은 따로 살고 있는 자녀세대의 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지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이미 중년기까지는 노년기를 대비한 지출을 통하여 경제적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이미 중년기까지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재정적 과제로서, 중년기에 노년기를 대비한 지출을 포함하여 경제적인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중년기 가정의 주요한 경제문제이며 동시에 경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이기영 외, 1995:12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

로 노년기를 대비한 지출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안정된 노년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년기 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적 자원을 관리해야 하는가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노후를 대비하여 중년기부터 지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일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점검해 보고 노년기에 닥칠 재정적 문제나 위기를 예방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자원관리방식을 통하여 그러한 위험과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년기와 노년기 가계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전반적인 재정관리의 측면에서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꾀하며, 생활주기별로 한계효용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노년기라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위한 지출과 현재를 위한 지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뒷받침하고, 향후 노년기의 안정된 삶을 위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중년기의 재정적 과제

중년기는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고등교육 및 취업, 결혼으로 인한 배출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동시에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단계이다. 중년기의 경제적 과제는 통례적으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일상적인 생활비의 충족, 자녀의 학교교육비의 준비, 자녀의 결혼비용의 마련, 주택의 소유와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등이다 (김외숙 외, 1990:235). 이 단계는 만이의 대학입학과 함께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최고로 높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수입은 증대하나 지출은 더 크게 늘어 가계에 압박을 받게 되고, 다가오는 정년을 생각하여야 한다. 정년퇴직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자녀관련 비용 외에 특별히 노후생활준비가 중차대한 재무과제로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박성구, 1995:12-13).

따라서 중년기 가계는 이처럼 처해있는 생활주기

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가계경제의 균형과 안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출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년기 가계의 경우, 40~50대 초반에는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자신을 위한 노후대책을 세울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직까지는 미비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려면 중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구체적인 노후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외숙 외, 1990: 247).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경제생활실태와 문제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고교생 자녀를 둔 중년기 가정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목은 교육비로서 전체 생활비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경제적 곤란을 느끼는 비목역시 과외비 조달로서 (이 기영 외, 1995:120-121), 중년기 가계에 있어 자녀관련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중년기 가계의 재정적 요구 중에서 자녀와 관련된 부담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는데,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저축형태의 차이를 연구한 조희금(1984)의 결과에 따르면 가계저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첫 자녀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1,2단계에서는 주택 마련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는 자녀교육이, 자녀의 결혼자금형성을 위해서 등으로 나타나서, 중년기에 자녀관련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세정·주인숙, 1994: 64 재인용). 이처럼 자녀관련비용으로 인한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의 저축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양세정·이영호, 1996:214).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생의 생활주기를 고려하여 경제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년기 단계에서 노후 대비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자녀관련비용으로 인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실제적 차원에서 자원관리행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중년기의 가정은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노년기에 대비할 충분한 자산이나 부를 축적할 수 없어,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문숙재, 1996:224 재인용).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는 40대 초반이, 학력별로는 고졸이, 수입은 50만원 전후가 노후문제를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식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학력이 낮을수록, 수입이 적을수록 더한 것을 나타냈다. 또한 노후를 위한 저축액에 있어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5~1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입과 퇴직후 연금혜택정도 등이 노후준비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노후를 대비한 지출실태에 있어서도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배계희, 1988).

선행연구에서 중년기 가정의 노후준비상태를 보면, 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미 되어 있다는 비율이 55.4%이고 노후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비율은 44.6%로 나와, 노후준비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조사대상의 경제적 만족도와 관련하여 노후준비여부가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리 관련변수로 나타나 (이기영외, 1995:124 ; 126), 노후를 대비한 지출을 통한 재정관리가 중년기 가계의 중차대한 생활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 노년기의 경제문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노년인구비율은 다른 연령층의 증가비율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14세 이하 인구의 몇 %가 65세 이상 인구인가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1970년에는 7.2%에 불과하지만 1995년에는 25.2%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2025년을 기점으로 14세 이하의 유

〈표 1〉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천명, %

구분 연도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1970	13,709	17,540	991	5.7	7.2
1975	13,614	20,449	1,217	6.0	8.9
1980	12,951	23,717	1,456	6.1	11.2
1985	12,305	26,759	1,742	6.5	14.2
1990	10,974	29,701	2,195	7.4	20.0
1995	10,537	31,900	2,657	8.3	25.2
2000	10,233	33,671	3,371	10.0	32.9
2005	10,421	34,450	4,253	12.3	40.8
2010	10,090	35,506	5,032	14.2	49.9
2015	9,515	36,316	5,846	16.1	61.4
2020	9,013	36,446	6,899	18.9	76.5
2025	8,633	36,465	8,613	24.3	99.8
2030	8,448	34,130	10,165	29.8	120.3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 / (14세이하 인구) × 100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 86

년인구보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년기의 문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생활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예컨대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정신적인 고립감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노인들의 자살동기나 우울증 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결핍감 즉 욕구로 집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심신의 건강상실, 경제적인 의존, 인간관계의 단절, 사회적 역할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인생의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의 종합에 따라 일어나는 것인데, 그 핵심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임재범, 1986).

이와 유사하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한 박성연·최혜경(1985)의 연구에서도 사회관계, 주거생활, 경제생활 등에 걸친 노인의 경제 및 서비스의 욕구가 충족될 때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는 원만해지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향상되며, 특히 노인의 경제적 욕구는 사회관계나 주거생활과 관련된 다른 욕구의 충족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소임이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경제적

인 영역에서의 안정 및 욕구충족이 노년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노인들 스스로 경제적 불안정을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로 인식하며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측면 역시 경제적 부양으로 나타나 (김효심·심효식, 1995: 67), 노년기 단계에서 경제적 안정감이 전반적인 생활의 질과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수입원 중에서 자녀의 원조에 의존하는 가계가 63.7%인 것으로 나타나서(민재성 등, 1993 - 문숙재 외, 1996:224 재인용) 독립적인 경제생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1994년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2,4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하는 노인은 전체의 36.7%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표본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전체 노인의 26%가 월수입 10만원 이하의 열악한 경제상태에 있으며 44.5%의 노인이 월수입 20만원 이하의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의 주된 수입원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수입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장남·며느리부터의 도움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27.0%). 그 외의 수입원으로는 부동산, 집세, 저축으로부터의 수입(6.9%), 연금, 퇴직금으로부터의 수입(3.9%)이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수입원의 반 정도가 자녀로부터의 도움인데 반해 일본 노인의 경우는 절반 정도가 연금이나 퇴직금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아직 우리나라는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노후복지제도가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태현·이인수, 1996:22-26).

한편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가정생활주기 중 중년기 후반이나 늦어도 노년기 초반까지는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에 대한 지출로 인하여 노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년기의 빈곤이나 자녀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결과되기도 한다.

1967년 한국은행에서 처음 실시한 '저축시장조사'

에서는 저축목적의 72.6%가 자녀교육이었으며, 1971년도와 그 이후의 조사에서도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조달'이 높게 나와, 20, 30년에 걸쳐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목적 중 가장 우선하는 항목은 '자녀관련자금'임을 알 수 있다. 저축목적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노후생활비 마련' 목적이 크게 증가한 점으로서,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점차 약해지고 노후를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보내고자 하는 의식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기영 외, 1996: 65). 그러나 노후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중년기까지의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 및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년기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에서는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집단보다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자식에게 의존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배계희, 1988). 또한 중년기 가계의 노후대비 재정계획 및 수행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년기 가계가 대체로 노후대비를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나타났다 (김은정, 1993).

한편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재 노후준비 방법을 보면 <표 2>에서와 같이 1994년 현재 준비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47.0%이며, 예·적금이 17.8%, 보험이 16.1%, 연금이 16.0%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노후준비방법

(단위: %)

구분 연도	준비 방법							준비 없음
	보험	예· 적금	연금	계	부동산	유가 증권	기타	
1988	8.6	9.4	11.5	1.3	3.6	0.6	0.2	64.9
1991	11.2	10.4	13.4	0.7	2.9	0.3	0.1	61.0
1994	16.1	17.8	16.0	0.5	2.5	0.1	0.1	47.0

자료: 통계청, 생활속의 통계 (종합), 1996: 114

또한 1995년을 기준으로 공적연금의 연간 평균 급여비를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1인당 86만원, 공무원 연금의 경우 1175만원 정도, 사립·교직원 연금의 경

우 1373만원 정도이다. 이는 1995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이 164만원, 가계지출은 140만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평균 이하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통계청, 1997 - 이기영 외, 1998 재인용).

노부모에 대한 부양상태를 보면, <표 3>과 같이 1994년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는 노인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37.9%이며, 나머지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장남이 부양하는 경우가 33.1%로 나타났다.

<표 3> 부모의 생계부양(1994년)

(단위: %)

유형 구분	장남	차남 이하	아들 모두	딸	아들딸 모두	스스로 해결, 기타
전국	33.1	7.6	8.7	1.6	11.1	37.9
시부	29.9	7.0	8.8	1.6	11.4	41.2
군부	48.4	10.4	7.9	1.5	9.6	22.2
15-29세	19.3	3.3	6.0	1.8	9.5	60.1
30-39세	30.0	7.4	9.1	1.1	11.5	40.9
40-49세	42.0	10.5	10.6	1.9	12.6	22.4
50-59세	52.9	11.1	9.0	2.5	10.5	14.0
60+	51.8	11.0	8.5	2.1	9.6	17.0
초졸이하	50.6	11.8	7.9	2.3	10.4	16.9
중졸	40.2	9.7	8.6	1.7	12.5	27.3
고졸	30.3	7.1	8.9	1.6	11.3	40.9
대졸이상	25.1	5.2	8.7	1.2	10.3	49.5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122

위의 표를 보면 이러한 추세는 시부와 군부 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부의 경우는 노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장남의 부양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군부의 경우는 그 반대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더 낮다.

결론적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가계는 노년기가 되면서 은퇴로 말미암아 생활수준이 하락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데, 따라서 노년기 가계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의 영위, 그리고 노년기 가계에 나타날 수 있는 재정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후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준비 즉 재무계획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순재·김순미, 1997:2).

과거에는 경제적인 노후보장은 거의 자녀라고 할 수 있었던 반면,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이 증가하며 자녀세대의 독립에 대한 요구 등과 함께 소득이 중단된 노인들의 경우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노후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제생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대비하여 적어도 중년까지 노후를 대비한 가계지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는 자원관리행동이 필요하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는 노후를 대비한 중년기가계의 지출실태 및 이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독립변수를 크게 조사대상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후대비 요구도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와 예비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는 자녀수·부부의 연령 및 학력·자녀에 대한 의존도·남편의 직업유형·월평균소득·총재산·월저축액·주택가격·예상되는 남편의 퇴직금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노후대비 요구도 변수는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TV/매스컴의 노후대비 프로그램·노후대비 정보·정부가 제공하는 노후대비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구도로 구성하였다.

노후대비 지출실태는 노후를 대비한 지출항목의 갯수·월평균노후준비금·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① 중년기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노후를 대비한 지출실태의 측면에서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월평균 노후준비금·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

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② 중년기 가계의 노후대비 요구도 변수에 따라 노후를 대비한 지출실태의 측면에서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월평균 노후준비금·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③ 중년기 가계의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노후대비 요구도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중년기 가계의 전업주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중·고등학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으로 설정한 선행연구(이기영 외, 1995)를 참고하여, 현실적으로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준비금이라는 실태에 따라, 대학입시를 목표로 자녀교육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막내자녀의 학령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노후대비 요구도 조사 및 노후대비 준비금 실태의 전반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7년 5월에 50명의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 설문지를 수정하여 본 조사는 1997년 8-9월 사이에 실시하였는데, 울산시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각각 5곳씩 선정하여 학부모에게 설문지가 배부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총 450부를 배부하였고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365부이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대상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 13문항, 노후대비 요구도와 관련된 질문 4문항, 지출실태와 관련된 질문 3문항 그리고 나머지는 노년기의 생활과 관련된 일

반적인 견해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후대비 요구도는 노후를 대비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TV/매스컴의 노후대비 프로그램·노후대비 정보·정부가 제공하는 노후대비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필요하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요구도와 지출실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에서는, 이 네가지 변수를 합하여 전반적인 노후대비 요구도 변수를 따로 구성하였는데, 이 변수의 Cronbach' α 계수는 .68로 나왔다.

또한 배계희(1988)와 김은정(1993) 그리고 Davis · Helmick(1988), Hira · Fitzsimons · Bauer(1983) 등의 선행연구에서 노후를 대비한 중년기의 경제적준비와 관련, 노후대책에 대한 태도 및 실태를 조사한 문항 및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노후대비 지출실태는 노후를 대비한 지출항목의 갯수, 월평균 노후준비금, 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성하였다. 이로써 중년기 가계가 월별로 지출하는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있어 얼마만큼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시키고 있는가, 실제 절대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노후준비금의 상대적인 비율 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을 사용하였고,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일원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가계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수는 평균 2.46명이고 남편의 평균연령은 48세이며 부인의

평균연령은 45세이다. 월평균소득은 266만원이며 총 재산은 평균 2억3천867만원으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4>에 나와 있다.

2. 노년기의 경제생활에 대한 중년기 가계의 일반적인 견해

우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다섯가지의 경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택마련 및 확장자금, 자녀결혼비, 자녀교육비, 노후보장비 그리고 사고·질병에 대한 자금의 준비가 어느 정도 긴급한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꼽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이 표의 결과처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년기에는 아직도 다른 항목보다는 주택마련 및 확장과 자녀관련비용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월수입에서 위의 다섯가지 비목에 대하여 지출되는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주택마련 및 유지 그리고 자녀교육자금에 지출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녀 결혼자금, 노후보장 그리고 불의의 사고·질병의 순으로 나왔다.

중년기인 현재와 비교하여 노후에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 및 노후에 예상되는 월평균 수입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6>과 같다.

위의 표를 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수준은 현재의 80%-90%정도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현재와 동일 그리고 현재의 60%-70% 정도의 순으로 나와, 전반적으로 중년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노년기에는 현재보다는 생활비가 덜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하여 노후에 예상되는 월평균 수입의 수준에 있어서는 현재의 50%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이 범주 안에서도 현재의 50% 정도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현재의 60-70% 정도, 현재의 80-90%, 현재와 동일의 순으로 나와, 전반적으로 현재와 비교할 때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수준보다 예상되는 수입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N(%)	변수	집단	N(%)
자녀수	1명	55(15.0)	월평균소득 (만원)	~100	36(9.8)
	2명	161(44.1)		~200	157(43.0)
	3명	100(27.4)		~300	95(25.8)
	4+	49(13.5)		300+	77(21.2)
	평균	2.46명		평 균	265.83만원
남편연령	30대	31(8.5)	총재산(만원)	~5000	73(19.9)
	40대	164(46.4)		~10000	92(25.3)
	50대+	170(46.5)		~20000	89(24.2)
	평균	48.43세		~30000	52(14.1)
부인연령	30대	84(23.0)	월저축액 (만원)	30000+	56(15.3)
	40대	169(46.4)		평 균	23867.4만원
	50대+	112(30.7)		~30	66(18.1)
	평균	45.26세		~60	91(24.9)
남편학력	초졸	14(3.8)	주택가격 (만원)	~100	104(28.6)
	중졸	53(14.5)		~150	35(9.7)
	고졸	196(53.7)		~250	39(10.7)
	대졸이상	102(27.9)		~700	30(8.3)
	평균			평 균	109.97만원
부인학력	초졸	29(7.9)	주태가격 (만원)	~3000	15(14.8)
	중졸	116(31.8)		~6000	77(21.1)
	고졸	164(44.9)		~10000	121(33.1)
	대졸이상	56(15.3)		~18000	64(17.6)
남편직업	사무직	170(46.6)	남편의 퇴직금 (만원)	~30000	27(7.4)
	자영/기술/상인	111(30.4)		30000+	22(6.0)
	전문/전문기술/경영	39(10.7)		평 균	10755.63만원
	단순노무/생산/판매/기타	45(12.3)		~500	71(19.4)
주택유형	자택	271(74.2)	~1000	72(19.8)	
	전세	75(20.5)	~2000	25(6.8)	
	월세/사글세	3(0.8)	~5000	6(1.6)	
	기타	16(4.4)	평 균	4262.78만원	

〈표 5〉 다섯가지 경제적 과제의 우선순위

과제	주택마련/ 확장자금	자녀결 혼자금	자녀교육 자금	노후보장 자금	비상대 책자금	합 계
비율	28.1%	26.8%	20.7%	14.0%	10.4%	100.0 %

또한 노후생활에서 중요시하는 항목을 경제적 안정, 정신적 안정, 여가생활, 건강유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지원 등 5가지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가 〈표 7〉에 나와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건강유지를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제적 안정, 정신적 안정, 여가생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지원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다. 중년기에는 교육 및 결혼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나, 일단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녀에 대한 지원보다는 노인 자신의 건강과 안정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년기에는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자신의 노년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실제적인 중년기 및 노년기의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현재의 비교한 노후에 요구되는 생활비수준과 예상되는 월평균수입

범 위	생활비요구 (빈도, %)	월평균수입 (빈도, %)
현재의 150% 이상	12(3.3)	12(3.3)
현재의 130-140% 정도	14(3.8)	13(3.3)
현재의 110-120% 정도	25(6.8)	
현재와 동일	96(26.3)	43(11.8)
현재의 80-90% 정도	110(30.1)	51(14.0)
현재의 60%-70% 정도	71(19.5)	91(24.9)
현재의 50% 이하	37(10.1)	155(42.5)
합계	365(99.9)	365(99.8)

〈표 7〉 노후생활에서 중시하는 항목의 우선순위

항목	경제적 안정	정신적 안정	여가 생활	건강 유지	자녀 지원	합계
비율 (%)	28.8	18.1	15.3	32.1	5.7	100

한편 노인들이 양로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 좋다는 긍정적 응답이 58.3%, 좋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31.5% 그리고 그러 그렇다가 10.1%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8〉 참조).

〈표 8〉 노인들의 양로시설 이용에 대한 견해

분류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합계
빈도(%)	31(8.5)	84(23.0)	37(10.1)	175 (47.9)	38(10.4)	365(100)

3. 중년기 가계의 노후대비 지출실태

노후대비 지출실태는 노후를 대비하는 지출항목의 갯수가 몇 개인가, 월평균 노후준비금은 얼마인가 그리고 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일반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표 9〉에서와 같이 노후를 대비한 지출항목에서는 일반저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그 다음이 일반보험, 적금, 노후대비보험, 연금, 계, 부동산 투자, 주식 및 채권투자의 순으로 나왔다.

〈표 9〉 노후를 대비한 지출항목

지출항목	빈도 (%)
일반저축	319(87.4)
각종 정기적금	147(40.3)
일반보험	195(53.4)
노후대비보험	131(35.9)
연금	115(31.5)
계	86(23.6)
주식/채권	57(15.6)
부동산	68(18.6)

한편 대상자들이 가계 당 지출하고 있는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는 평균 2.89개로 나왔다. 즉 가계 당 평균 3개 정도의 금융상품에 노후를 대비한 지출을 분산시키고 있다. 또한 월평균 노후대비 지출액은 221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평균적으로 33만4천원을 지출하고 있다 (〈표 10〉 참조). 그리고 총가계지출 중 노후준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0% 사이가 가장 많았다 (〈표 11〉 참조).

〈표 10〉 월평균 노후대비 지출액

지출액의 범주	빈도(%)
10만원 미만	114(31.2)
~ 20만원	88(24.1)
~ 50만원	118(32.3)
~ 100만원	29(8.0)
100만원+	16(4.4)
합계	365(100.0)
평균	33.438만원

이제 연구문제에 따라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영향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를 일원분산분석을

〈표 11〉총가계지출 중 노후준비비의 비율

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비의 비율	빈도(%)
10% 미만	93(25.5)
~30%	192(52.6)
~50%	66(18.1)
~70%	10(2.7)
70%+	4(1.1)
합계	365(100.0)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2〉에 나와 있다.

〈표 12〉에 따르면, 먼저 노후를 대비한 지출항목의 갯수는 부부의 연령, 부부의 학력 그리고 남편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여, 부부가 모두 40대일 때 노후를 대비한 지출항목이 가장 다양하며, 50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부부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항목도 더 많아져서, 학력이 높을 때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노후를 대비한 지출을 분산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편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의 경우가 지출항목이 제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측면의 변수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월소득과 총재산 그리고 월저축액과 주택가격 및 남편 퇴직금이 많아질수록 노후를 대비한 지출항목의 갯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변수와의 관계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가 많아지다가, 그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섯가지 경제적 변수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어느정도까지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를 대비한 지출을 다양하게 분산시키지만, 소득이나 월저축액 그리고 총재산이나 주택가격 또는 남편 퇴직금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오히려 지출항목의 평균적인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저량과 유량의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의 경우,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성이 클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지출항목이 다양해 질 필요성을 그만큼 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 노후준비금에 있어서는 먼저 자녀수와 남편학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녀수가 1명일 때 월평균 노후준비금이 가장 많으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그 액수도 적어진다. 이로써 자녀가 1명일 경우 자녀교육이나 혼인 등과 관련된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지출을 다양하게 분산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관련비용과 노후를 대비한 준비금이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남편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월평균 노후준비금이 가장 높고 초졸일 때 가장 낮았다. 이는 남편의 학력과 월소득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월평균 준비금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써 아직까지 자녀는 노후를 위한 보장에 있어서 다른 경제적 준비와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변수를 살펴보면, 월평균소득, 총재산, 월저축액, 주택가격 및 남편의 퇴직금이 많아질수록 월평균 노후준비금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남편 퇴직금의 경우, 일정 정도까지 퇴직금액이 증가될수록 월평균 노후준비금도 높아지지만, 퇴직금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오히려 노후준비금이 적어져서, 앞의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퇴직금이 충분한 수준에서는 노후를 위한 절대적인 지출액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총 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부부의 학력과 남편의 직업이 영향을 미쳐, 부부가 대졸 이상일 때 그리고 남편 직업이 자영업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변수로는 남편이 퇴직시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퇴직금액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남편의 퇴직금액이 많아질수록 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퇴직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이나 월평균 노후준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액이 매우 많을 경우 이 퇴직금으로 인한 노년기의 경제

〈표 12〉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영향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

변수	영역 집단	노후대비 지출 항목의 갯수		월평균 노후 준비금 (만원)		추가계지출 중 노후 준비금의 비율(%)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아내연령	30대	3.23	4.470**	28.98	1.410	13.01	2.002
	40대	3.26		30.01		13.98	
	50대+	2.76		29.80		14.01	
남편연령	30대	2.71	4.925**	29.10	1.513	14.09	1.937
	40대	3.35		29.89		14.00	
	50대+	2.92		30.01		15.78	
자녀수	1명	3.33	1.930	47.38	4.385**	16.17	2.313
	2명	3.32		34.97		19.82	
	3명	3.01		21.35		16.00	
	4명+	3.20		15.00		17.01	
아내학력	초졸	2.97	4.142**	18.01	2.835	18.04	3.250*
	중졸	2.89		23.89		15.00	
	고졸	3.07		23.01		16.28	
	대졸+	3.70		29.09		21.07	
남편학력	초졸	2.57	5.720 ***	25.14	4.370**	20.89	6.823***
	중졸	2.75		34.96		12.23	
	고졸	2.98		27.08		12.98	
	대졸+	3.57		46.01		21.07	
남편직업	사무직	2.27	8.760 ***	32.96	1.937	11.01	3.467**
	자영업	3.08		33.18		18.38	
	전문직	3.41		33.78		16.89	
	단순노무직	2.74		31.01		16.08	
자녀에 대한 의존도	높음	2.35	1.380	19.23	4.850**	14.25	2.489
	보통	2.86		23.89		17.23	
	낮음	2.78		26.25		16.15	
가계소득 (만원)	~100	2.36	7.948 ***	15.69	25.83 ***	13.09	2.074
	~200	2.90		19.80		14.00	
	~300	3.55		35.64		15.78	
	300+	3.30		66.82		15.09	
총재산 (만원)	~5000	2.89	2.934*	18.07	15.60 ***	17.23	2.003
	~20000	2.98		28.37		18.82	
	~30000	3.58		34.13		16.90	
	30000+	3.23		61.25		17.01	
월저축액 (만원)	~60	2.74	5.925 ***	17.39	25.78 ***	15.94	1.252
	~150	3.33		31.96		15.00	
	~250	3.49		54.67		15.23	
	250+	3.40		96.67		17.27	
주택가격 (만원)	~3000	2.61	4.551 **	18.72	12.37 ***	15.67	2.017
	~10000	3.03		26.15		13.43	
	~30000	3.48		52.44		13.48	
	30000+	3.32		56.59		14.07	
남편퇴직금 (만원)	~500	2.27	5.383 ***	25.25	5.739 ***	12.01	4.329**
	~1000	3.08		32.31		14.89	
	~2000	3.41		69.00		23.08	
	2000+	3.17		28.33		18.92	

* p < .05 ** p < .01 *** p < .001

적 안정성을 예상한다는 측면에서, 노후를 대비한 별도의 지출은 절대적인 액수의 측면으로 보나 그리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측면으로 보나 오히려 감소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월소득이나 저축액, 자산, 주택가격 등의 변수보다는 예상되는 남편의 퇴직금이 세 영역에 있어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대비 요구도와 지출실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구·TV/매스컴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노후대비 정보에 대한 요구·정부가 제공하는 노후대비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 등 네 영역에 있어

서의 요구도와 이 네가지 항목별 요구도를 합하여 전반적인 노후대비 요구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요구도가 높은 집단과 보통인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분산분석을 통하여 지출실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가 다음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 볼 때,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노후를 대비한 지출항목이 갯수가 많아지며, 월평균 노후준비금이 커지고 또한 총가계 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요구도가 높을 때 실제 지출실태의 수준 및 정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TV나 매스컴에서 제공하는 노후대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월평균 노후준비금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요

<표 13> 노후대비 요구도와 지출실태와의 관계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지출실태 집단(요구정도) (비율)+	노후대비 지출 항목의 갯수(개)		월평균 노후 준비금(만원)		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구	낮음(28.3)	1.77	6.091 **	16.78	6.010 **	11.23	3.809 *
	보통(36.5)	3.00		21.02		13.89	
	높음(35.2)	3.18		28.23		16.01	
TV/매스컴에 대한 요구	낮음(33.1)	2.12	1.431	23.24	5.156 **	15.23	1.101
	보통(34.8)통	2.34		19.03		14.87	
	높음(32.1)	2.32		26.89		16.28	
노후대비 정보에 대한 요구	낮음(31.0)	2.08	3.624 *	15.00	8.110 ***	14.00	4.175 *
	보통(36.8)	3.03		22.37		19.37	
	높음(32.2)	3.17		32.04		21.02	
노후를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	낮음(29.9)	2.00	8.886 ***	16.93	5.930 **	14.23	1.023
	보통(36.1)	2.18		20.36		15.25	
	높음(34.0)	3.20		26.34		15.20	
전반적인 노후대비 요구	낮음(33.1)	2.10	6.897 **	18.37	7.102 ***	14.28	3.484 *
	보통(36.2)	2.78		23.46		16.92	
	높음(30.7)	3.41		30.57		19.01	

* p < .05 ** p < .01 *** p < .001

+ 요구도수준의 범주는 빈도분포를 통하여 평균값을 구한 다음 이 평균값으로부터의 편차 및 빈도수를 고려하여 구분하였음.

구도가 높은 경우가 월평균 노후준비금이 많으며, 요구도가 보통인 경우 노후준비금의 액수가 가장 적다. 노후를 대비한 정보에 대한 요구 역시 그 정도가 높아질수록 노후를 대비한 지출을 더욱 다양하게 하며, 월평균 노후준비금도 높고 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그리고 노후를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질수록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가 많아지며 월평균 노후준비금도 많아진다.

전반적으로 노후를 대비한 요구도가 높아질수록 재정관리 실태의 세 영역에 있어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후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요구도와 실제 지출실태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요구도변수가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후대비 지출실태를 구성하는 세가지 변수 각각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의 <표 14> <표 15> <표 16>에 나와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남편의 연령과 부인의 학력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포함시켰다.

<표 14>를 볼 때, 노후대비 지출항목에는 부인의 연령, 총재산, 주택가격, 남편퇴직금 그리고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구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대비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영향을 미쳐, 부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재산, 주택가격 및 남편퇴직금액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구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질수록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가 많아진다. 경제적 변수에 있어서는 특별히 월소득이나 저축액과 같은 유량보다는 총재산, 주택가격, 남편의 퇴직금 등과 같은 저량의 경제적 자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은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의 총분산을 총 26%를 설명해 주고 있다.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에는 특별히 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가계가 노후를 대비하여 지출하는 월평균 노후준비금에는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자녀수,

<표 14>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b	β
사회경제적 특성		
자녀수	-.032	-.046
부인연령	.284	.198**
남편학력	.083	.070
자녀에 대한 의존도	-.041	-.003
월평균소득	.097	.098
총재산	.123	.203**
월저축액	.212	.100
주택가격	.246	.128**
남편퇴직금	1.253	.699***
노후대비 요구도		
경제적 준비	2.831	.544***
TV/매스컴의 프로그램	.170	.076
노후대비 정보	.121	.053
복지정책	.460	.322***
F값	3.007**	R ² = .26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에 대한 의존도, 월평균소득, 총재산, 월저축액, 주택가격, 남편퇴직금 그리고 네 항목에 있어서의 노후대비 인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15> 참조). 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월평균 노후준비금은 줄어들고 있어서, 자녀관련비용이 중년기 가계의 노후대비 지출금의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노후준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의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와는 달리, 월평균 노후준비금의 경우에는 다섯가지 경제적 변수가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량과 유량의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노후준비금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대비 지출항목의 갯수보다는 실제로 지출되는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 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네 항목에서의 노후대비 요구도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TV/매스컴의 프로그램 및 정보

〈표 15〉 월평균 노후준비금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b	β
사회경제적 특성		
자녀수	-.623	-.256**
부인연령	.159	.098
남편학력	.162	.089
자녀에 대한 의존도	-.101	-.223**
월평균소득	.197	.382***
총재산	.432	.224**
월저축액	.142	.367***
주택가격	.234	.221**
남편퇴직금	.653	.439***
노후대비 요구도		
경제적 준비	2.831	.544***
TV/매스컴의 프로그램	.270	.107*
노후대비 정보	1.121	.242**
복지정책	.460	.322***
F값	6.598***	R ² = .38

* p < .05 ** p < .01 *** p < .001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지출되는 노후준비금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총분산의 38%를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16〉을 보면,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있어서 상대적인 분량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총가계 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남편학력과 남편퇴직금액이 그리고 노후대비 요구도에서는 경제적 준비와 노후대비 정보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편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남편퇴직금이 많아질수록 월평균 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남편의 퇴직금이 세 항목의 지출실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구도와 노후대비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질수록 노후준비금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노후대비 요구도 변수 중에서는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구도가 세가지 항목의 지출실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16〉 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b	β
사회경제적 특성		
자녀수	-.052	-.046
부인연령	.157	.116
남편학력	.675	.134*
자녀에 대한 의존도	-.065	-.056
월평균소득	.087	.080
총재산	.224	.078
월저축액	.412	.102
주택가격	.236	.112
남편퇴직금	.456	.432***
노후대비 요구도		
경제적 준비	.831	.348***
TV/매스컴의 프로그램	.420	.070
노후대비 정보	2.301	.234**
복지정책	.350	.067
F값	3.088**	R ² = .21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변수는 총분산의 21%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중년기 가계의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영향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노후대비 요구도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다른 변수보다 남편의 퇴직금액이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별 가계들이 가정생활주기별로 다양한 재정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년기는 노년기를 대비한 준비의 중요성이 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관련비용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재정적 요구로 인하여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실행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음에 주목하여, 중년기 가계가 노후를 대비하여 어떤 형태의 지출을 얼마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영향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대비 지출실태를 나타내는 지출항목의 갯수, 월평균 노후준비금, 총가계지출에서 노후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조사대상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인 부부의 연령과 학력, 자녀수, 남편직업, 자녀에 대한 의존도, 가계소득, 총재산, 월저축액, 주택가격, 남편퇴직금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또한 노후를 대비한 요구도의 측면에서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TV/매스컴의 프로그램·정보·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세 영역에 있어서의 노후대비 지출실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도 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향후 예상되는 남편의 퇴직금 액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노후를 대비한 계획 및 지출에 있어서는 퇴직금의 액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액수와 안정성은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무직이나 전문직과 같은 직업영역에서는 퇴직금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자영업이나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직업영역에서의 퇴직금제도와 그 안정성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대비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와 관련되어, 이 요구도가 높을수록 노후대비 지출항목이 다양해지며 월평균 노후준비금이 많아진다는 사실로도 입증되는 바이다.

아직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후보장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중년기 가계는 나름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개별적 차원의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후보장이 비용 면에서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시급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수나 자녀에 대한 의존도를 볼 때,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노후준비금은 적어진다는 결과로부터, 자녀와 노후대비 지출이 대체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자녀수와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녀관련변수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진다. 즉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자녀관련비용이 증가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모의 절대적인 노후대비 지출액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자녀수가 적은 가계보다는 많은 가계에서 부모의 노후를 자녀에 의존하고자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가계의 경우 노후를 대비하여 부모들 스스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그리 높게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있어서, 지출항목의 갯수는 경제적 자원 중 유량보다는 저량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실제로 지출되는 절대액을 반영하는 월평균 노후준비금에는 저량과 유량의 경제적 자원의 수준 모두가 영향을 미쳐서, 축적된 저량의 수준이 높을 때 지출항목을 더욱 다양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한 달 한 달 지출되는 절대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저량 뿐 아니라 월평균소득과 같은 유량의 수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노후대비 요구도와 노후대비 지출실태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한 요구도 및 TV나 매스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노후대비 정보나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집단에서 노후를 대비한 실제적인 지출액수 및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중년기 가계에 있어 노후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하여 중년기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노후대비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보다 구체화된 영역에 대한 요구로 전환시킴으로써, 실제로 노후를 대비한 합리적인 지출행동을 체계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와 관련된 일반적인 견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주택 및 자녀와 관련된 재정적 요구로 인한 부담이 노후보장을 소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나 노후에 예상되는 소득보다 예상되는 생활비의 수준이 더 높다고 예상

하는 점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녀에 대한 지원보다는 자신의 건강유지와 경제적 안정 등을 더욱 중시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양로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으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후의 독립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단계에서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경제적 자원의 분배결정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특별히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노후를 대비한 정보나 프로그램 그리고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월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이나, 유용한 프로그램 그리고 노후를 대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년기를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키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관리실태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그리고 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가정생활주기를 고려한 가정자원관리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1996). 생활속의 통계(종합).
- 2)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 3) 박성구(1995). 월급쟁이 부자되기, 금성출판사.
- 4) 이기영 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II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995. 115-127.
- 5) 이기영 외(1996). 광복 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대학교 출판부.
- 6) 이기영 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 7) 임재범(1986).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성연·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 모형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23(1).
- 9)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11)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12) 김태현·이인수(1996). 실버산업의 실제, 하우.
- 13) 김의숙·이기영·최은숙(1990). 가정관리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14) 최현령·임정민(1996).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75-189.
- 15) 양세정·주인숙(1994). 가계저축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62-71.
- 16) 김효심·신효식(1995).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66-73.
- 17)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15.
- 18) 양세정·이영호(1996).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2, 201-215.
- 19) Davis, Helmick(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20) Hira, T.K., Fitzsimons, V.S. & Bauer, J.L.(1983). Factors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J. of Family Economic Issues 14(3), 237-256